

“이광철 靑민정비서관이 ‘옵티머스 이행정관’ 추천”

〈李〉

이 전 행정관 검찰서 진술... “이광철 추천받아 청와대 행”
옵티머스 주주 숨기고 청구무... 지난해까지 9.8% 지분 보유
남편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사기로 이미 수감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6)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옵티머스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을 추가 수사 중이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앞서 검찰에 출석해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락과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행정관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를 지낸 윤 변호사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해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경영진에게 하기도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까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데도 이를 차명으로 숨기고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행정관

은 옵티머스가 인수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업체인 ‘해덕파이웨이’ 사외이사를 맡았다.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 전 행정관은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여론 유력인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사건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이 기소됐을 때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와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을 맡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 전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 과정과 주요 직무와 관련해 이 비서관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부장 검사 주민철)는 이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 전 행정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또 이날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를 통한 돈세탁으로 성지건설을 인수했다는 옵티머스 전 이사의 증언을 확보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도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지난해 10월 4일 전 옵티머스 사내이사 A(40)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전파진흥원 기금 1060억원을 운용한 경위를 조사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A씨에게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자금을 유치한 명세를 제시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옵티머스 퇴직 전까지 옵티머스 초기 펀드 설정 등을 검토한 인물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펀드들은 김재현(50·수감 중) 옵티머스 대표가 가져왔고, 펀드 관련 계약서와 매출채권 등도 김 대표에게 건네받아 펀드 제안서를 만들었다”며 “성지건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옵티머스로 넘기는 계약서를 보고 가장납입이 의심됐지만, 김 대표 지시로 내부검토를 통과시켰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성지건설과 관련해 옵티머스가 자금세탁 역할을 한 의혹을 제기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청와대

면서 김 대표 등이 이에 기댄한 정황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성지건설 횡령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 없이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하이 컨설팅·엔비캐피탈대부 사내이사과 대

표이사를 맡았던 유모(39) 씨와 성지건설 대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의 박모 대표이사 등을 구속기소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이 전 행정관이 보유한 지분은 김재현 대

표나 남편 윤 변호사 등의 차명 지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옵티머스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건강 문제가 있어 검찰 조사 때도 배려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bamboo8775@meconomynews.com

“김봉현 입장문’ 특별검사가 수사하라”

“강기정에 5천만원... 검사 술집대”
특검수사가 공수처보다 효율·공정”

변호사모임 성명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육중 성명’에 따른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검찰보다 감사원의 감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변은 1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이 진행하는 (김봉현 전 회장의 육중 성명과 관련한) 검찰과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이를 감사원 감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데 이어, 16일 ‘육중 성명’을 통해서도 현직 검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집대를 하고 검찰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도 갈등을 낳고 있다”며 “폭로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직접 검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직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상대 로비 의혹 진술을 했음에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대검은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문을 냈다”고 소개한 경변은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견해가 부딪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사의 중립성을 잃고 검찰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법무부와 검찰이 감사권과



경변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수사권을 바탕으로 충돌하는 양상은 권한의 사유화와 남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권한의 사유화’를 척결하던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경변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공수처보다 효율성과 공정성이 훨씬 높다고 봤다. 경변은 “공수처나 특별검사 모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제도”라면서도 “특별검사는 공수처와 달리 수사과 기소 주체를 일원화해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아닌 이 사건 관계자도 수사할 수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이 훨씬 높은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찬제 기자
a47681590@meconomynews.com

옵티머스 문건, 속속 사실로... 진영 장관도 5억 투자

‘펀드 하자 치유 문건’ 확인
유상범, 與투자자 명단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허위(虛偽)라고 선을 그었던 옵티머스 문건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까지 공개되면서 사상 초유의 권력형 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관계 로비설에

불을 지핀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문건에 나오는 A 뉴스테이 사업이 옵티머스 측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벌써 두 번째 사실 확인이다.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포함된 남동발전 사업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근거가 나온지 닷새 만이다.

해당 문건을 두고 추미애 장관과 여당 측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가짜라고 주장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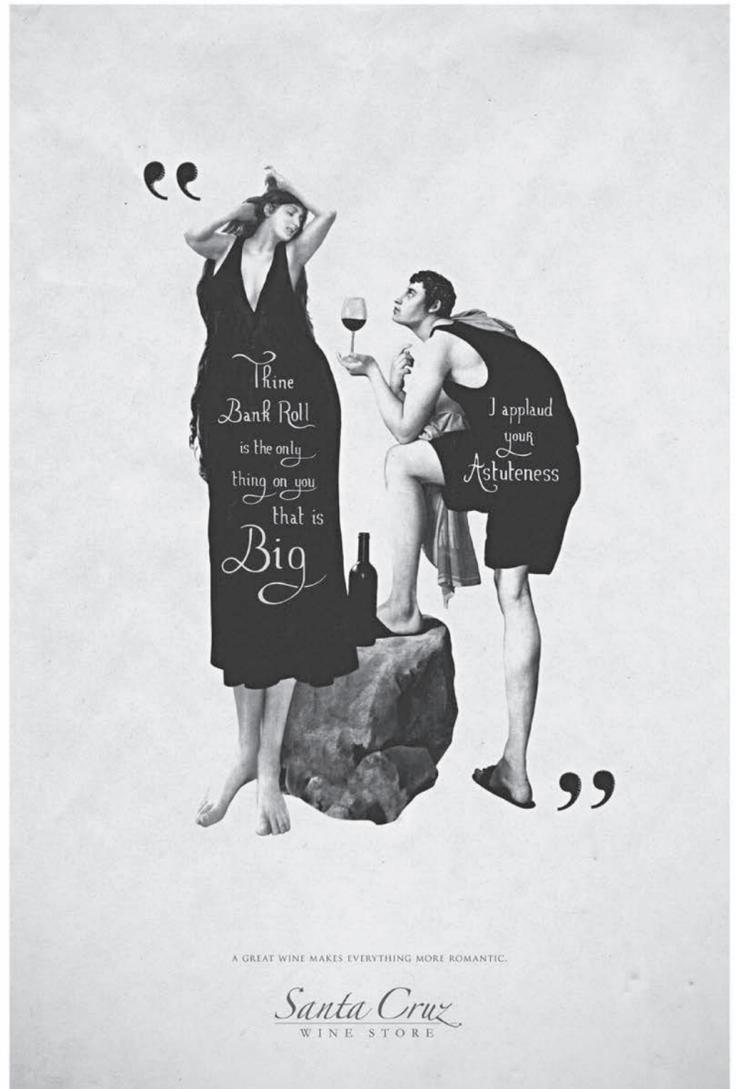
유상범 의원은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야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거론하며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동명이인(同名異人)일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했느냐’고 물었는데 이 지검장은 ‘문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해당 투자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가족과 함께 5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진영 장관이 투자한 상품의 만기는 지난 8월로 옵티머스 펀드가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창균 기자crack007@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Silver Lion Campaign
Title: BANK ROLL <블랙락 용어>Dealer 바로 앞에 Tray 속에 보관되어 있는 카지노 Money를 말한다
Client: SANTA CRUZ WINE STORE 산타크루즈 와인 샵
Agency: PUBLICIS SAO PAULO 퍼블리시스 상파울로
Product: SANTA CRUZ WINE STORE 산타크루즈 와인 샵
Copy: 좋은와인은 무엇이트든 조금더 로맨틱하게 만드다.